

오경에 나타난 קָנָה 의 서사적 기능과 LXX 번역 대응: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박이삭(충신대)

1. 서론

히브리어 동사 קָנָה (파카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약 300회 사용 되는 전형적인 다의어(polysemous verb)로서, 오랫동안 구약학의 주목을 받아왔다. *TDOT*, *HALOT*, *TLOT* 등 주요 신학 사전류는 이 동사의 의미 범주를 ‘돌보다’(attend to), ‘방문하다’(visit), ‘벌하다’(punish), ‘계수하다’(muster), ‘임명하다’(appoint) 등으로 분류하며 각 용례의 의미론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¹ 이러한 어휘론적 분류는 개

* 본 논문은 생성형 AI(Claude Sonnet 5, ChatGPT[GPT-5.5], Gemini Deep Research)를 자료 조사, 초안 작성, 논리 점검 및 문장 교정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Claude는 초안 작성과 문장 교정에, ChatGPT는 논리 점검과 피드백에, Gemini Deep Research는 자료 조사에 활용하였다. 인용 및 서지 정보는 저자가 원전과 원자료를 대조하여 검증하였으며, 논문의 논지와 최종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1 Gunnel André, “ קָנָה ”,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2 (Grand Rapids: Eerdmans, 2003), 50-63 (이하 *TDOT*); Ludwig Koehler/Walter Baumgartner/Johann Jakob

별 용례의 의미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유용하지만, 동일한 동사가 특정 문헌군 안에서 반복되면서 나타내는 분포적 특징과 통사적 결합 구조의 차이를 함께 조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동사의 의미는 고정된 추상적 의미 목록만으로 결정되기보다 결합하는 명사구의 성격과 전치사 수반 여부 등 구체적인 통사적 환경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용례의 의미론적 분화를 존중하면서도, 동일한 동사가 특정 문헌군 안에서 어떠한 통사적 환경과 서사적 문맥에 반복적으로 배치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임스 바(James Barr)가 경고한 ‘부당한 총체적 전이’(Illegitimate Totality Transfer)의 오류를 경계하며,² קָפַד라는 어근 자체에 하나의 총체적 신학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특정 용례군에서 관찰되는 분포와 통사적 결합, 그리고 서사적 배열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어휘 의미론적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קָפַד(파카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어휘론적 연구와 개별 본문에 대한 주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안드레(André, *TDOT*), 쇼트로프(Schottroff, *TLOT*), 윌리엄스(Williams, *NIDOTTE*)는 이 동사의 의미 영역과 용례를 세밀하게 분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쇼트로프(Schottroff)는 קָפַד(파카드)가 전치사 עַל(알)과 결합하는 일부 용례에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형벌의 의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하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 and 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5 vols. (Leiden: Brill, 1994–2000), s.v. “קָפַד” (이하 *HALOT*); Wolfgang Schottroff, “קָפַד pqd to attend to”, Ernst Jenni/Claus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trans. Mark E. Biddle (Peabody: Hendrickson, 1997), 1018–1031 (이하 *TLOT*); Tyler F. Williams, “קָפַד”,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7), 657–663 (이하 *NIDOTTE*).

2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218.

였다.³ 주석 연구에서는 베스터만(Westermann)이 창세기 21장 1절과 관련하여 **קָרַף**의 약속의 성취적 의미를 논의하였고, 차일즈(Childs)와 데이비스(Davies)는 출애굽기의 관련 용례가 창세기 말미의 약속과 형성하는 문학적·신학적 연관성을 주목하였다.⁴ 이 연구들은 개별 용례와 본문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원적 **קָרַף** 용례들을 그 분포와 형태 통사적 반복의 관점에서 함께 비교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토브(Tov)의 논의는 LXX의 번역 대응을 개별 어휘의 일대일 대응만이 아니라 번역 기법과 통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적 참조점을 제공한다.⁵ 그로스펠트(Grossfeld)는 고대 역본에서 **קָרַף**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비교하였으며, 게만(Gehman)은 LXX의 **ἐπισκέπτομαι**(에피스케프토마이)와 관련 어휘의 의미와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קָרַף**와 그 헬라어 대응어의 관계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⁶

국내 학계에서도 히브리어 어휘의 의미·번역·서사적 기능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김진규는 잠언의 מְשִׁכִּיל(마

3 Schottroff, *윳글*, 2:1025.

4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5), 333;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226; G. I. Davies, *Exodus 1-18: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1: Chapters 1-10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London: T&T Clark, 2020), 297.

5 Emanuel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3r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218-220.

6 Bernard Grossfeld, "The Translation of Biblical Hebrew **קָרַף** in the Targum, Peshitta, Vulgate and Septuagint,"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6 (1984), 83-101; Henry Snyder Gehman, "Ἐπισκέπτομαι, ἐπίσκεψις, ἐπίσκοπος, and ἐπισκοπή in the Septuagint in Relation to **קָרַף** and Other Hebrew Roots: A Case of Semantic Development Similar to That of Hebrew," *Vetus Testamentum* 22 (1972), 197-207.

스킬) 번역 문제를,⁷ 하계상은 창세기 2-3장의 עָרוֹם / עָרוֹם / עֵירוֹם 삼중 언어유희와 번역 문제를,⁸ 윤동녕은 에스겔서의 אֶשְׁכְּנָה(하존 사브/허탄한 묵시)의 의미와 기능을,⁹ 이상혁은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¹⁰ 또한 본 연구가 분석하는 출애굽기의 서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민경구는 출애굽기 3장의 소명 장면을,¹¹ 전재영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이야기를 각각 연구하였다.¹² 최근에는 윤형이 정경적 관점에서 창세기에 기원을 둔 ‘장자 이스라엘’ 개념이 오경의 전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추적하였고,¹³ 주은평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바로 앞의 4장 21-23절과 연결하여 문맥적·신학적으로 해석하였다.¹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특정 קִטְּבֵי 용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포적·형태적·통사적 연관성을 검토하고, 이를 LXX의 번역 대응과 함께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오경에 나타나는 동사 קִטְּבֵי의 용례를 전수 조사하여 그 분포와 문맥적 기능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창세기와

-
- 7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 8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롬(עָרוֹם), 아롬(עָרוֹם), 에롬(עֵי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44-171.
- 9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묵시’(אֶשְׁכְּנָה)의 의미와 기능 연구: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 10 이상혁,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 고찰 - 알렉산드리아 성경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1호 (2012년 10월), 66-87.
- 11 민경구, “대화인가, 독백인가? - 출애굽기 3:4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83집 (2022년 3월), 66-92.
- 12 전재영, “금송아지 이야기(출 32)에 반영된 레위 성전경비대의 이미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0-39.
- 13 윤형, “오경에 나타난 장자 이스라엘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92집 (2024년 6월), 167-192.
- 14 주은평,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 단락(출 4:21-23)과 연결하여 본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신학적 해석”, 『구약논단』 93집 (2024년 9월), 361-393.

출애굽기에 집중되는 특정 용례군을 형태·통사적 특징과 서사적 문맥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적 방문’은 727 자체에 고정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문맥상 하나님의 돌봄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공동체의 구출과 관련되는 용례들을 다른 기능의 용례들과 구별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 용어는 오경 전체의 구속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거나 모든 727 용례에 동일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서사적 분석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문헌 형성 과정이나 개별 전승 층의 발생 순서를 재구성하려는 통시적 연구가 아니라, 본문의 최종 형태를 공시적으로 읽을 때 관찰되는 727 용례의 분포와 형태·통사적 반복, 그리고 그 서사적 배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하에서 논의하는 ‘서사적 패턴’은 개별 본문의 역사적·전승사적 기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종 형태의 독서 순서에서 관찰되는 용례들 사이의 반복과 변주를 기술하기 위한 분석적 표현으로 사용한다. 본고의 분석 범위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한다. 그 근거는 2장에서 오경 전체의 용례 분포를 검토한 후 제시한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심판적 용례는 이 구원적 용례군과의 형태·통사적 대조를 살피기 위한 사례로 다루며, LXX의 번역 대응은 히브리어 본문의 분석 이후 별도의 절에서 검토한다.

2. 오경의 ㄱᄃᆫ 용례 분포와 유형 분류

1) 오경 전체 용례 분포 개관

오경에서 동사 ㄱᄃᆫ(파카드)는 창세기에 9회,¹⁵ 출애굽기에 18회,¹⁶ 레위기에 3회,¹⁷ 민수기에 100회,¹⁸ 신명기에 2회 사용되어¹⁹ 모두 132회가 확인된다.²⁰ 빈도상으로는 민수기의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그 절대 다수는 인구조사와 군사적 편제의 문맥에 집중되어 있다.²¹ 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ㄱᄃᆫ가 돌봄과 약속의 이행, 심판적 보응, 계수·등록, 임명·위임 등 서로 다른 문맥적 기능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단순한 출현 빈도보다 각 용례가 나타나는 문맥과 통사적 결합을 기준으로 ㄱᄃᆫ의 기능을 구분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오경의 ㄱᄃᆫ 용례는 구원적 방문, 심판적 보응, 계수·등록, 임명·위임의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원적 방

15 창 21:1; 39:4, 5; 40:4; 41:34; 50:24[x2], 25[x2].

16 출 3:16[x2]; 4:31; 13:19[x2]; 20:5; 30:12-14[12절 3회, 13절과 14절 각 1회; 총 5회]; 32:34[x2]; 34:7; 38:21[x2], 25, 26.

17 레 5:23; 18:25; 26:16.

18 민 1:3, 19, 21-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47[이 중 44절은 2회], 49-50; 2:4, 6, 8-9, 11, 13, 15-16, 19, 21, 23-24, 26, 28, 30-33[이 중 32절은 2회]; 3:10, 15-16, 22, 34, 39[x2], 40, 42, 43; 4:23, 27, 29, 30, 32, 34, 36-38[이 중 37절은 2회], 40-42[이 중 41절은 2회], 44-46[이 중 45절과 46절은 각각 2회], 48, 49[x2]; 7:2; 14:18, 29; 16:29; 26:7, 18, 22, 25, 27, 34, 37, 41, 43, 47, 50-51, 54, 57, 62-64[이 중 63절과 64절은 각각 2회]; 27:16; 31:14, 48-49.

19 신 5:9; 20:9.

20 이 통계는 Accordance 13에서 ㄱᄃᆫ의 동사 표제어(lemma)를 검색하여 집계하였다. 어근 ㄱᄃᆫ 전체를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파생 명사형을 포함하여 총 381회의 용례가 확인되지만,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동사 ㄱᄃᆫ의 서사적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분사형과 부정사형 등 동사 표제어 아래 분석되는 형태는 포함하되, 파생 명사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1 민수기에 나타나는 ㄱᄃᆫ의 계수·행정적 용법에 대해서는 최현일, “ㄱᄃᆫ(파카드)를 통한 민수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도 참조하라.

문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표 1).²²

표 1. 오경의 𐤀𐤍 용례 기능 분류

용례 기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²³	신명기
구원적 방문	21:1; 50:24[x2], 25[x2]	3:16[x2]; 4:31; 13:19[x2]	-	-	-
심판적 보응	-	20:5; 32:34[x2]; 34:7	18:25; 26:16	14:18; 16:29	5:9
계수·등록	-	30:12[x3], 13, 14; 38:21[x2], 25, 26	-	1-4장과 26장 대부분	-
임명·위임	39:4, 5; 40:4; 41:34	-	5:23	7:2; 27:16; 31:14, 48, 49	20:9

이 분류에서 확인되는 분포상 두드러지는 특징은, ‘구원적 방문’으로 분류되는 용례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면 심판적 보응, 계수·등록, 임명·위임의 용례는 오경의 여러 책

22 이 분류는 *TDOT*, *TLOT*, *HALOT* 등 주요 사전류가 제시하는 𐤀𐤍의 의미 범주를 참조하여,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구원적 방문’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𐤀𐤍 자체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유형이 아니라, 문맥상 하나님의 돌봄·약속의 이행·구출과 관련되는 용례들을 구별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이다. 본 연구는 𐤀𐤍의 새로운 의미론적 유형론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오경뿐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용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3 민수기의 𐤀𐤍 용례 대부분은 인구조사와 군사 편제에 관련된 계수·등록 문맥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표에서는 해당 용례군을 장 단위로 제시하고 그 밖의 기능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들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에 걸쳐 발견된다. 이와 같은 관찰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ἱερω** 용례들을 별도의 용례군으로 비교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21:1)과 요셉의 미래 방문에 대한 선언(50:24-25)에 **ἱερω**가 사용되며, 출애굽기에서는 동일한 어휘와 일부 형태적 표현이 출애굽의 개시와 공동체의 수용, 그리고 요셉의 선언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다시 나타난다(3:16; 4:31; 13:19). 이러한 분포와 어휘적·형태적 반복은 최종 형태의 독서 순서에서 서사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 창세기·출애굽기 집중의 귀납적 근거

본고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ἱερω** 용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근거는 분포적 집중이다. 앞의 분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경 내의 **ἱερω** 용례 중 ‘구원적 방문’으로 분류되는 용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만 나타난다. 레위기의 용례는 심판적 보응과 임명·위임에, 민수기의 용례는 대부분 계수·등록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명기의 용례 역시 심판적 보응과 임명·위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원적 방문이라는 동일한 기능 범주에 속하는 용례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일차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²⁴

다음 근거는 기능적 대비의 가능성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구원적 방문뿐 아니라 임명·위임, 심판적 보응, 계수·등록 등 서로 다른 기능의 **ἱερω** 용례가 함께 나타난다. 이 증거들은 동일한 동사가 문맥과 통사적 결합에 따라 어떻게 다른 기능으로 실현되는지를 비교할 수

24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민수기를 비롯한 레위기와 신명기의 **ἱερω** 용례에 대한 세부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게다가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적 방문과 심판적 보응이 동일 문헌 안에 함께 나타나기에, 두 용례군의 형태·통사적 차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근거는 최종 형태의 연속적 독서에서 관찰되는 반복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현재의 오경 배열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다. 창세기 50장 24-25절에 나타나는 **פָּקַד** 표현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책인 출애굽기의 3장 16절과 13장 19절에서 형태적 유사성과 반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반복이 단순한 어휘 재사용을 넘어 어떠한 서사적 연관성을 형성하는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나, 3장에서 각 본문의 문맥과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석한 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창세기·출애굽기의 구원적 **פָּקַד**: 반복과 서사적 전개

1) 창세기 21:1 — 구원적 **פָּקַד**의 서사적 출발점

창세기 21장 1절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²⁵

וַיְהִי הָאָמֶן פָּקַד אֶת־שָׂרָה כַּאֲשֶׁר אָמַר
וַיַּעַשׂ יְהוָה לְשָׂרָה כַּאֲשֶׁר דִּבֶּ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פָּקַד**),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창 21:1)

이 절은 최종 본문의 배열 순서를 기준으로 할 때, ‘구원적 방문’으

25 이하 히브리어 본문은 BHS를 따르며, 별도 표기가 없는 한국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로 분류 가능한 **קָנָה** 용례가 처음 나타나는 본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1절은 이후 용례들과 비교하기 위한 서사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문법적으로 **קָנָה**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명시적 주어인 여호와와는 동사 앞에 위치하며, 직접 목적어 표지 **אֶת**(에트)와 함께 사라를 목적어로 취한다. **קָנָה יְהוָה**(바도나이 파카드)의 배열은 뒤이어 나타나는 **יָעַשׂ יְהוָה**(바야아스 아도나이)의 동사-주어 배열과 구별된다. 물론 어순의 차이만으로 국면 전환이나 특정한 신학적 강조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קָנָה**의 명시적 주어이며, **קָנָה**가 **אֶת-סָרָה**(에트-사라)를 직접 목적어로 취한다는 형태·통사적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만 확인한다.

(1) 인간적 한계의 서사적 배경

사라의 불임과 노령은 창세기의 선행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고 명시하며, 창세기 17장 17절과 18장 11-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령을 거듭 언급한다. 창세기 21장 1절의 **קָנָה**는 이러한 인간적 한계가 충분히 제시된 이후에 등장한다. 이로써 사라의 불임과 노령은 **קָנָה**의 어휘적 의미라기보다, 이 용례가 놓인 문맥적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약속의 이행으로서의 **קָנָה**

창세기 21장 1절에서 **קָנָה**의 기능을 규정하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כְּאִשְׁרָאָה קָנָה**(카셰르 아마르/“말씀하신 대로”)와 이어지는 **כְּאִשְׁרָאָה קָנָה**(카셰르 디베르/“말씀하신 대로”)의 반복이다. 이 표현은 사라에게 이루어진 행위가 앞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 자체에서 명시한다. 해밀턴(Hamilton)과 베스터만(Westermann) 역시 이 구절을 앞

서 주어진 약속이 실현되는 문맥에서 해석한다.²⁶ 따라서 여기서 **קָנָה**는 막연한 관심이나 일시적인 돌봄을 표현하기보다, 앞서 선언된 말씀이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문맥에 위치한다. 사르나(Sarna)는 **קָנָה**가 문맥에 따라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어근이 이후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약속과 관련된 본문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을 언급한다.²⁷

(3) 약속 성취에 따른 서사적 전환

창세기 21장 2-3절은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행위가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생으로 이어졌음을 서술한다. 특히 21장 1절의 두 차례에 걸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과 2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라는 진술은 이 장면을 앞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와 직접 연결한다. 따라서 이삭의 출생은 **קָנָה**가 나타난 이후 서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본문만으로 **קָנָה**에 아브라함 언약 전체 또는 열방의 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방문이 앞서 주어진 말씀의 이행과 연결되고, 그 행위가 이삭의 출생이라는 후속 서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2) 창세기 50:24-25 — 미래 방문의 확인과 반복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을 앞둔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짐과 같이 선언한다.

26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71; Westermann, 윗글, 333.

27 Nahum M. Sarna, *Genesis* (Jewish Publication Society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45.

וַיֹּאמֶר יוֹסֵף אֶל־אֶחָיו אֲנֹכִי מֵת
וְאֱלֹהִים פָּקֹד פִּקְדוֹתְכֶם וְהָעֵלָה אֹתְכֶם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פִּקְדוֹתְכֶם, פָּקֹד).’ (창 50:24a)

창세기 21장 1절에서 פָּקֹד가 칼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이 결합한 פָּקֹד פִּקְדוֹ 구문이 사용된다. 히브리어의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finite verb)의 결합은 해당 동작의 확실성이나 강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다.²⁸ 이로써 이 구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라는 요셉의 확고한 전망을 표현한다.

창세기 21장 1절과 비교하면 두 본문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난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이 פָּקֹד의 주어이며 인적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하지만, 창세기 21장 1절이 사라라는 개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한다면, 창세기 50장 24절은 복수 목적어 אֹתְכֶם(에트켄/“너희를”)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공동체를 향해 진망한다. 두 본문에서 동일한 어휘는 서로 다른 시제와 대상을 취하며, 과거의 돌봄에서 미래의 방문에 대한 전망으로 기능이 달라진다.

이때 창세기 50장 24절의 발화 상황을 출애굽기의 억압 상황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창세기 서사에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위기보다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 특히 “나는 죽으나”와 “하나님

28 Wilhelm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ed. E. Kautzsch, trans. A. E. Cowley,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10), §113n.

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의 대조는 인간 지도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나란히 배치한다. 여기서 פָּקֹד יְפָקֶד(파코드 이프코드)는 창세기의 종결부에서 독자를 이후의 하나님의 행위로 향하게 하는 미래 지향적 선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미래 전망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동일한 פָּקֹד יְפָקֶד(파코드 이프코드)가 다시 사용됨으로써 한 차례 더 강조된다.

פָּקֹד יְפָקֶד אֱלֹהִים אֲתֶכֶם וְהָעָלָם אֶת־עַצְמֹתַי מִצֵּרָ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פָּקֹד יְפָקֶד].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라.’(창 50:25b)

사르나는 이 반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²⁹ 특히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동일한 어근과 부정사 절대형 강조 구문이 재현된다는 사실은 창세기 말미의 선언과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선언 사이에 분명한 어휘적·형태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자신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갈 것을 맹세하게 한다. 이 요청은 50장 24-25절의 미래 전망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후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과 직접 연결된다. 그렇기에 요셉의 뼈에 관한 요청은 창세기 말미에 제시된 미래 전망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서사적 표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연결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29 Sarna, 윗글 (1989), 351.

3) 출애굽기 3:16, 4:31 — 약속의 재현과 공동체적 수용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פָּקֹד פִּקְדוֹתַי אֲתָכֶם וְאֶת־הָעָם

내가 분명히 너희를 돌보았다(פִּקְדוֹתַי). (출 3:16c)

이 표현은 창세기 50장 24-25절의 פָּקֹד פִּקְדוֹ(파코드 이프코드)와 분명한 형태적 연관성을 보인다. 두 본문 모두 פָּקֹד의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를 결합한 강조 구문을 사용하며, 복수 2인칭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한다. 다만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이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פָּקֵד(이프코드)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전망하는 반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칼 완료 1인칭 단수 פִּקְדֹתִי(파카드티)와 결합하여 여호와 자신의 행위를 직접 선언한다. 동일한 어근과 강조 구문이 인칭과 동사 형태를 달리하여 재현된다는 사실은 창세기 말미의 요셉의 선언과 출애굽기에서의 여호와와의 선언 사이에 어휘적·형태적 연결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³⁰

이러한 연결은 두 본문의 문맥에서도 확인된다. 창세기 50장 24-25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을 선언하지만,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도록 명하면서 동일한 פָּקֹד 어근을 사용하여 자신의 돌봄을 선언한다. 사르나(Sarna)는 출애굽기 3장 16절의 표현이 창세기 50장 24-25절에 나타난 요셉의 말을 반향한다고 지적하며, 데이비스(Davies) 역시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사 절대형 강

30 Nahum M. Sarna, *Exodus* (Jewish Publication Society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8.

조 구문을 중요한 연결 요소로 주목한다.³¹ 따라서 두 본문의 관계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설정된 하나의 고정된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기보다, 창세기 말미에 미래를 향해 제시된 **קָדַם**의 선언이 출애굽기의 새로운 발화 상황에서 형태적으로 재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6절의 문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족장 전승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장면이 창세기의 선행 서사와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문맥적 연속성을 **קָדַם** 자체의 고정된 ‘언약적’ 의미에서 도출하기보다, 족장들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קָדַם** 강조 구문의 반복이 함께 제공하는 서사적 연결의 한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קָדַם**가 다시 사용된다.

וַיֵּאמְרוּ הָעָם וַיִּשְׁמְעוּ כִּי־קָדַם יְהוָה אֶת־בְּנֵי יִשְׂרָאֵל
וְכִי רָאָה אֶת־עֲנָנִים וַיִּקְרָאוּ וַיִּשְׁתַּחֲוּוּ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קָדַם**)는 것과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는 것을 듣고 엎드려 절했다. (출 4:31)

이 구절은 3장 16절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선언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수용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돌보셨다(**קָדַם**)는 사실과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רָאָה**)는 사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데, 백성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을 듣

31 Sarna, *읽글* (1991), 18; Davies, *읽글*, 297. 특히 Davies는 같은 맥락에서 출 3:16에서 창세기의 미래 시제 선언이 현실로 선언된다고 분석한다.

고 믿고 경배한다. 그렇게 4장 31절은 3장 16절의 선언이 공동체에게 전달되어 수용되는 서사적 단계로 기능한다. 이 장면의 의미는 모세가 앞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이다”(출 4:1)라고 우려했던 문맥과 대조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 우려했으나, 백성은 여호와와의 돌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으며 경배한다.

4) 출애굽기 13:19 — 요셉의 선언 회고와 서사적 귀환

הַשְּׁבַע הַשְּׁבִיעַ אֶת־בְּנֵי יִשְׂרָאֵל לֵאמֹר
פָּקֶד וּפָקֶד אֱלֹהִים אֶתְכֶם וְהַעֲלִיתֶם אֶת־עֲצָמֹתַי מִזֶּה אִתְּכֶם

그(요셉)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פָּקֶד וּפָקֶד).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였다. (출 13:19b)

이 구절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50장 24-25절과 가장 직접적인 연결을 형성한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화자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킨 말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50장 24-25절에 두 차례 나타났던 פָּקֶד וּפָקֶד(파코드 이프코드)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두 본문 모두 פָּקֶד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 결합하며, 하나님을 행위의 주체로 하고 복수 2인칭 대상을 그 대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연결은 단순한 주제적 유사성에 머물지 않고, 명시적인 인용 관계와 형태적 반복을 통해 본문 자체에서 확인된다.

특히 창세기 50장 24-25절에서 פָּקֶד וּפָקֶד(파코드 이프코드)는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전망하는 선언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그 선언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집트를 떠나는 서사 속에서 다시 인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표현은 창

세기 말미에서는 미래를 향한 전망으로, 출애굽기의 이 장면에서는 그 전망을 회고하는 표현으로 각각 기능한다. 차일즈(Childs)가 이 구절을 창세기 말미의 요셉 전승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처럼,³² 이 명시적 회고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3장 사이의 문학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인용은 요셉의 뼈를 운반하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자신의 뼈를 이곳에서 가지고 올라갈 것을 맹세하게 하였고, 출애굽기 13장 19절은 모세가 바로 그 뼈를 가지고 나갔다고 기록한다. 스튜어트(Stuart)가 지적하듯 요셉의 뼈 운반은 창세기 말미에 남겨진 요청이 출애굽 사건 안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³³ 이로써 요셉의 뼈는 별도의 신학적 상징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창세기 50장의 미래 전망과 출애굽기 13장의 서사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서사적 표지로 기능한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קָדַם** 용례들은 각기 다른 문맥에서 반복과 변주를 보인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קָדַם**가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앞서 주어진 말씀의 이행을 서술하고, 창세기 50장 24-25절에서는 **קָדַם** **קָדַם**(파코드 이프코드)라는 강조 구문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 행위를 전망한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קָדַם** **קָדַם**(파코드 파카드티)의 형태로 재현되고, 4장 31절에서는 공동체가 그 돌봄의 소식을 수용하는 장면에 다시 등장하며, 13장 19절에서는 요셉의 말을 직접 회고하면서 **קָדַם** **קָדַם**(파코드 이프코드)가 다시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קָדַם** 자체에 하나의 총체적 신학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최종 형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속적으로

32 Childs, 윗글, 226.

33 Douglas K. Stuart, *Exodus* (New American Commentary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325.

읽을 때 특정 구원적 용례들이 어휘적·형태적·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표 2. 창세기·출애굽기의 구원적 𐤀𐤍 용례 비교

본문	대상	형태적 특징	문맥적 기능	다른 용례와의 관계
창 21:1	사라	칼 완료 + 𐤀𐤍	앞서 주어진 말씀의 이행	구원적 𐤀𐤍의 서사적 출발점
창 50:24-25	이스라엘 공동체	칼 부정사 절대형 + 미완료	하나님의 미래 방면에 대한 확인	출 3:16; 13:19와 형태적·서사적으로 연결
출 3:16	이스라엘 공동체	칼 부정사 절대형 + 완료 1인칭	여호와와 돌봄 선언	창 50:24-25의 표현을 변주하여 재현
출 4:31	이스라엘 공동체	칼 완료 + 𐤀𐤍	돌봄의 소식에 대한 공동체적 수용	출 3:16의 선언이 전달된 결과
출 13:19	이스라엘 공동체	칼 부정사 절대형 + 미완료	요셉의 미래 선언 회고	창 50:24-25의 말을 명시적으로 인용

4. 출애굽기 32:34의 심판적 𐤀𐤍과 형태·통사적 대비

1) 형태·통사적 차이: 𐤀𐤍 구문과 𐤁𐤍 구문의 대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앞서 출애굽기 3장 16절과 4장 31절에서 여호와와 돌봄에 관한 선언을 듣고 이에 응답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장면을 서술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𐤀𐤍은 앞선 구원적 용례들과 달리 죄에 대한 심판적 보응을 나타

내는 용례로 등장한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다 음과 같이 선언한다.

וְבִיּוֹם פָּקְדִי וּפְקַדְתִּי עֲלֵיהֶם חַטָּאתָם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 다[וּפְקַדְתִּי עֲלֵיהֶם חַטָּאתָם]. (출 32:34b)

이 구문은 앞선 구원적 פָּקַד 용례들과 형태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의 וּפְקַדְתִּי는 칼 부정사 연계형에 1인칭 단수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로, בִּיּוֹם פָּקְדִי (“내가 보응하는 날에”)라는 시간 표현의 일부를 이룬다. 이는 창세기 50장 24-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의 וּפָקַד פָּקַד(파코드 이프코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6절의 וּפָקַד פָּקַד(파코드 파카드티)처럼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가 결합하여 해당 동작의 확실성이나 강도를 강조하는 구문과 구별된다.³⁴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וּפָקַד가 앞선 구원적 용례에서와 같은 강조 구문으로 반복되지 않고, 심판 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을 명시하는 시간 표현 안에서 사용된다.

통사적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구원적 וּפָקַד 용례에서 동사는 אֶת־בְּנֵי יִשְׂרָאֵל(창 21:1), אֶתְכֶם(창 50:24; 출 3:16), אֶת־בְּנֵי יִשְׂרָאֵל(출 4:31)과 같이 인적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한다. 반면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이러한 직접 목적어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인적 대상은 עֲלֵיהֶם(“그들에게/그들에 대하여”)이라는 על + 인칭 접미사의 형태로 제시되며, 보응의 내용은 חַטָּאתָם(하타탐/“그들의 죄”)으로 명시된다. 쇼트 로프(Schottroff)는 וּפָקַד과 על과 결합하는 구문이 사법적·형벌적 보응의

34 Gesenius, 윗글, §113n.

문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³⁵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의 **קָרַב**는 앞선 구원적 용례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면서도, 결합하는 통사 구조와 문맥의 차이에 따라 죄에 대한 심판적 보응이라는 기능으로 실현된다.

이상의 비교에서 확인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4절의 **קָרַב**가 앞선 구원적 용례들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통사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구원적 용례에서는 **קָרַב**가 인적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하고, 일부 본문에서는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의 결합을 통해 행위의 확실성이 강조된다. 반면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부정사 연계형이 시간 표현 안에서 사용되고, 인적 대상은 **עַל** 구문으로 제시되며, 보응의 내용은 **מִצָּרָתָם** (“그들의 죄”)으로 명시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사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산출한다기보다, **קָרַב**가 각각의 문맥에서 ‘돌봄’과 ‘심판적 보응’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상응한다.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은 **קָרַב**의 의미가 어근 자체에 고정되어 있기보다, 결합하는 형태·통사적 환경과 서사적 문맥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비교 사례라 할 수 있다.

2) 구원적 용례와 심판적 용례의 문맥적 대비

앞서 확인한 형태·통사적 차이는 출애굽기의 서사적 문맥 안에서 도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룬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돌보셨다(**קָרַב**)는 소식을 듣고 믿으며 경배하였다. 반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동일한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한다(32:8). 특히 두 장면 모두 경배를 나타내

35 Schottroff, 윗글, 2:1025.

는 동사 **הָבָה**(하바/경배하다, 히쉬타펠형)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에게서 우상으로 전환되는 서사적 대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의 **הָבָה**는 앞선 구원적 돌봄과 달리 죄에 대한 심판적 보응을 나타내는 용례로 등장한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멸절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사르나(Sarna)는 이 본문을 심판이 유예된 상태로 설명하며, 이를 “집행유예”에 비유한다.³⁶ 차일즈(Childs) 역시 이 구절에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가능성이 유보된 채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긴장이 출애굽기 33-34장의 전개와 연결된다고 분석한다.³⁷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의 **הָבָה**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언약 위반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심판적 보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후의 언약 갱신 서사와 함께 읽을 때 돌봄과 심판이 동일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서사 안에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심판적 용례는 앞선 구원적 **הָבָה** 용례들과 단절된 별개의 현상이라기보다, 동일한 어근이 동일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제공한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4장 31절에서 **הָבָה**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을 나타내지만, 32장 34절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에 따른 죄의 보응을 지시한다. 이 차이는 **הָבָה** 자체에 ‘구원’ 또는 ‘심판’이라는 하나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며, 결합하는 형태·통사적 환경과 서사적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구체화됨을 드러낸다. 동시에 두 용례군이 동일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서사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출애굽기에

36 Sarna, 윗글 (1991), 210.

37 Childs, 윗글, 571-572.

서 하나님의 돌봄과 심판이 서로 분리된 두 서사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전개되는 상이한 국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LXX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 번역 대응

1) 구원적 용례에서의 ἐπισκέπτομαι 대응 경향

앞서 본 연구가 ‘구원적 방문’으로 분류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 용례들은 LXX에서 주목할 만한 번역상의 규칙성을 보인다. 창세기 21장 1절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ἐπεσκέψατο(에페스캡사토)로, 창세기 50장 24절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ἐπισκοπή ἐπισκέπεται(에피스코페 에피스캡세타이)로, 출애굽기 3장 16절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ἐπισκοπή ἐπέσκεμμαι(에피스코페 에페스캡마이)로, 출애굽기 4장 31절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ἐπεσκέψατο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의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다시 ἐπισκοπή ἐπισκέπεται로 옮겨진다. 이처럼 히브리어 정동사의 형태와 인칭에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용례군에서는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 세 본문에서는 ἐπισκοπή 계열 명사와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 동사의 결합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이러한 대응 경향은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심판적 용례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관찰된다. 이 절에서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은 두 차례 사용되는데, 첫 번째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포크디)는 시간 표현 안에서 LXX의 ἐπισκέπτωμαι(에피스캡토마이, 현재 가정법)로 옮겨지는 반면, 두 번째 정동사 𐤀𐤓𐤕𐤓𐤕𐤔𐤕𐤓𐤕(우파카트리)는 ἐπάξω(에파소)로 번역된다. 즉 동일한 절 안에서도 히브리어의 동일한 어근이 그 형태와 통사적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헬라어 동사로 대응한다. 심판의 시점을 여는 시간절에는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유지

되는 반면, 죄의 보응을 직접 서술하는 정동사에는 ἐπάγω 계열이 선택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구원적 용례군에서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LXX의 𐤀𐤒𐤓 번역은 기계적인 일대일 어휘 대응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개별 용례의 형태·통사적 환경과 문맥적 기능의 차이에 상응하여 서로 다른 번역어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번역상의 분산은 출애굽기 32장 34절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로스펠트(Grossfeld)는 히브리어 𐤀𐤒𐤓가 고대 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비교하면서, LXX가 𐤀𐤒𐤓를 하나의 헬라어 동사로 일관되게 대응시키기보다 문맥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번역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³⁸ 또한 심판적 보응의 문맥에서는 ἐπισκέπτομαι 외에도 ἐκδικέω(에크디케오) 계열을 비롯한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며,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정동사가 ἐπάξω로 옮겨진 것도 이러한 번역 분산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원적 용례군에서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𐤀𐤒𐤓와 ἐπισκέπτομαι 사이의 고정된 일대일 대응을 의미하기보다, 특정 문맥에서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번역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ἐπισκέπτομαι가 오경에서 구원적 문맥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계수 관련 용례에서도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𐤀𐤒𐤓의 대응어로 사용된다. 이 사실은 ἐπισκέπτομαι 자체를 배타적인 ‘구원 전문 용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오히려 𐤀𐤒𐤓와 ἐπισκέπτομαι가 ‘살피다’, ‘돌보다’, ‘감찰하다’ 등 일정 부분 중첩되는 의미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맥에서 대응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용례군에서는

38 Grossfeld, 윗글, 87.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실제로 심판적 보응 용례에서는 ἀποδιδούς(출 20:5; 신 5:9), ἐπάγων(출 34:7) 등 상이한 대응어가 나타나며, 임명·위임 용례에서는 καθίστημι 계열(창 41:34; 신 20:9)이 사용된다.³⁹ 이러한 번역 양상으로 볼 때, LXX의 𐤀𐤍𐤔𐤕 대응을 단순한 어휘 대 어휘의 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번역 양상을 해석하는 데 토브(Tov)의 논의는 방법론적 참조점을 제공한다. 토브는 히브리어와 LXX의 대응 관계를 평가할 때 개별 어휘의 대응뿐 아니라 번역 기법과 해당 표현이 놓인 문맥 및 통사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⁴⁰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확인한 번역상의 규칙성을 번역자의 의도적인 신학적 연관성 형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문맥과 형태·통사적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번역 대응의 경향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기로 한다.

2) 부정사 절대형 구문의 동족어 반복(figura etymologica) 재현

LXX의 𐤀𐤍𐤔𐤕 번역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히브리어 부정사 절대형 강조 구문이 헬라어로 재현되는 방식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50장 24-25절과 출애굽기 3장 16절, 13장 19절에서는 𐤀𐤍𐤔𐤕의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가 결합한 강조 구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히브리어의 이러한 형태에 직접 대응하는 문법 형식이 헬라어에는 없기 때문에, LXX는 세 본문에서 ἐπισκοπή와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의 정동사를 결합하는 동족어 반복 구문(figura etymologica)을 사용한다. 즉 히브리어의 형태를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동일 어근에서 파

39 그 밖에도 ἀνταπέδωκα(레 18:25), ἐπισυστήσω(레 26:16) 등이 심판적 보응의 용례에서 쓰인다.

40 Tov, 윗글, 218-220.

생된 명사와 동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복 구조를 재현한다. 세 본문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동족어 반복 구문이 나타나는 구절의 MT-LXX 대응

본문	MT	LXX
창 50:24	וְקָרָא וְקָרָא	ἐπισκοπεῖ ἐπισκέπεται
출 3:16	וְקָרָא וְקָרָא	ἐπισκοπεῖ ἐπέσκεμμαι
출 13:19	וְקָרָא וְקָרָא	ἐπισκοπεῖ ἐπισκέπεται

〈표 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세 본문 모두에서 ἐπισκοπεῖ가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의 정동사와 결합하여 히브리어 부정사 절대형의 반복 구조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히브리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와 동사를 결합함으로써 원문의 반복성과 강조 효과를 헬라어 문법 안에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창세기 50장 24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의 וְקָרָא וְקָרָא가 동일한 ἐπισκοπεῖ ἐπισκέπεται로 옮겨지고, 출애굽기 3장 16절의 וְקָרָא וְקָרָא 역시 동일한 명사형 ἐπισκοπεῖ와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의 정동사로 재현된다는 사실은, 이 세 본문의 번역 대응에 일정한 구조적 규칙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게만(Gehman) 역시 ἐπισκοπεῖ와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וְקָרָא의 번역에서 밀접하게 사용된다는 점과, 특히 이 세 본문에서 ἐπισκοπεῖ가 부정사 절대형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⁴¹ 따라서 이 번역 양상은 히브리어의 강조 구조가 LXX에서도 동족어 반복을 통해 일정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평

41 Gehman, 윗글, 197-207, 특히 200, 205.

가할 수 있다.

3) 번역 대응의 의미와 한계

이상의 두 가지 관찰,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קָדַשׁ 용례에서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계열이 반복적으로 대응한다는 점과, 부정사 절 대형 강조 구문이 $\epsilon\pi\iota\sigma\kappa\omicron\pi\eta +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계열의 동족어 반복으로 재현된다는 점은 이 용례군의 번역에 일정한 어휘적·구조적 규칙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는 민수기의 계수 문맥에도 사용되므로, 이 동사 자체를 배타적인 ‘구원 전문 용어’ 또는 ‘신학적 전문 용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קָדַשׁ 와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가 일정 부분 중첩되는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해당 구원적 용례에서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계열이 주요 대응어로 반복되고, 특히 강조 구문에서는 동족어 반복이라는 구조적 대응까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자료의 범위에 더 부합한다.

이러한 반복적 번역 대응은 LXX 독자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련 용례들 사이에 어휘적·서사적 연관성을 인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계열이 창세기 21장 1절, 50장 24-25절과 출애굽기 3장 16절, 4장 31절, 13장 19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그 가운데 부정사 절 대형 구문이 나타나는 세 본문에서는 $\epsilon\pi\iota\sigma\kappa\omicron\pi\eta + \epsilon\pi\iota\sigma\kappa\acute{\epsilon}\pi\tau\omicron\mu\alpha\iota$ 계열의 구조적 대응이 재현된다는 점은 이러한 연상의 토대를 형성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모든 LXX 독자가 해당 용례군 전체를 동일하게 환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반복적 번역 대응이 서로 다른 본문들 사이의 어휘적 연결을 강화하고, 후대 독자와 문헌이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언어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 헬라어 문헌, 특히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ἐπισκέπτομαι/ἐπισκοπή 용례를 해석하는 데 하나의 배경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LXX의 특정 ἱερεῖ 용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변형하는지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ἱερεῖ 용례와 그 LXX 번역 대응 사이에서 확인되는 어휘적·형태적·구조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논의를 한정한다.⁴²

6. 결론

본 연구는 오경에 나타나는 동사 ἱερεῖ의 용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 분포와 문맥적 기능을 검토한 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특정 구원적 용례들을 형태·통사적 특징과 서사적 문맥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히브리어 본문의 특징이 LXX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ἱερεῖ의 의미가 어근 자체에 고정된 하나의 신학적 개념으로 환원되기보다 각각의 문맥과 통사적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일부 용례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인 어휘적·형태적 연관성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오경의 ἱερεῖ 용례는 문맥적 기능에 따라 구원적 방문, 심판적

42 LXX의 ἐπισκέπτομαι/ἐπισκοπή 용례와 누가-행전의 신적 방문 모티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Joshua W. Jipp, *Divine Visitations and Hospitality to Strangers in Luke-Acts: An Interpretation of the Malta Episode in Acts 28:1-10*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153; Leiden: Brill, 2013); Gregory R. Lanier, "Luke's Distinctive Use of the Temple: Portraying the Divine Visitation,"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5/2 (2014), 433-462를 참조하라. 특히 Lanier는 누가복음의 ἐπισκέπτομαι/ἐπισκοπή 용례를 LXX의 관련 표현들과 연계하여 논의한다(특히 448, 459쪽). 이러한 후대의 수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응, 계수·등록, 임명·위임의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가 ‘구원적 방문’으로 분류한 용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반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용례는 심판적 보응과 임명·위임에, 민수기의 대다수 용례는 인구조사와 군사적 편제와 관련된 계수·등록에 집중된다. 이러한 분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קָנָה** 용례들을 하나의 비교 대상군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귀납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분류는 **קָנָה**의 새로운 의미론적 유형론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경의 다양한 용례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기능적 분류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קָנָה** 용례들은 하나의 고정된 서사 구조를 동일하게 반복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어휘적·형태적 반복과 변주를 드러낸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קָנָה**는 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앞서 주어진 말씀의 이행을 서술하며, 창세기 50장 24-25절에서는 **קָנָה** **קָנָה**라는 부정사 절대형 강조 구문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 행위가 확인된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וְקָנָה לְךָ** **קָנָה**의 형태로 재현되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여호와와 돌봄에 관한 선언이 공동체에게 전달되고 수용되는 장면에 다시 사용된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창세기 50장 24-25절의 **קָנָה** **קָנָה**를 다시 사용하면서 요셉의 말을 명시적으로 회고한다. 따라서 이 용례군의 연관성은 고정된 서사 도식보다는, 최종 형태의 독서 순서에서 확인되는 어휘적 반복과 형태적 대응, 그리고 서사적 회고의 관계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출애굽기 32장 34절의 심판적 **קָנָה** 용례는 앞선 구원적 용례들과 뚜렷한 형태·통사적 차이를 보인다. 구원적 용례에서 **קָנָה**가 인적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고 일부 본문에서는 부정사 절대형과 정동사의 결합을 통해 행위의 확실성이 강조되는 반면, 출애굽기 32장 34

절에서는 부정사 연계형이 시간 표현 안에서 사용되고, 인적 대상은 לָ (구문으로 제시되며, 보응의 내용은 אָמְרָם("그들의 죄")으로 명시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사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원이나 심판의 의미를 생성한다는 뜻이라기보다, קָרַף가 각각의 문맥에서 ‘돌봄’과 ‘심판적 보응’이라는 상이한 기능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형태·통사적 환경이 서로 상응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은 קָרַף의 의미가 어근 자체에 하나의 신학적 의미로 고정되어 있기보다, 결합하는 구문과 서사적 문맥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비교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LXX의 번역 대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원적 קָרַף 용례들 사이에 일정한 어휘적·구조적 규칙성이 확인된다. 해당 용례군에서는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심판적 보응이나 임명·위임 등의 문맥에서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ἐπισκέπτομαι가 민수기의 계수 문맥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동사를 배타적인 구원 전문 용어나 신학적 전문 용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קָרַף와 ἐπισκέπτομαι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해당 구원적 용례에서는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이 주요 대응어로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창세기 50장 24절과 출애굽기 3장 16절, 13장 19절의 קָרַף 부정사 절대형 구문이 LXX에서 ἐπισκοπή + ἐπισκέπτομαι 계열의 동족어 반복으로 일관되게 재현된다는 사실은, 히브리어의 반복 구조와 강조 효과가 헬라어 번역에서도 구조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은 קָרַף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때 개별 용례의 사전적 의미 분류뿐 아니라, 해당 용례가 놓인 형태·통사적 환경과 서사적 문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오경 전체의

קָרָא 용례를 새로운 의미론적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특정 구원적 용례군에서 관찰되는 반복과 변주, 그리고 그 LXX 번역 대응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레위기·민수기·신명기의 용례군과 이후 역사서·예언서·시편·지혜 문헌에서 קָרָ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례들이 제2성전기 문헌 및 신약의 ἐπισκέπτομαι/ἐπισκοπή 용례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장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히브리어 קָרָא의 다양한 문맥적 기능과 그 고대 번역 전통이 성경의 여러 문헌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주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 민경구, “대화인가, 독백인가? - 출애굽기 3:4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83집 (2022년 3월), 66-92.
- 우상혁,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 고찰 - 알렉산드리아 성경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1호 (2012년 10월), 66-87.
-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묵시’(אִשָּׁר וְחִזְיוֹן)의 의미와 기능 연구: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 윤형, “오경에 나타난 장자 이스라엘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92집 (2024년 6월), 167-192.
- 전재영, “금송아지 이야기(출 32)에 반영된 레위 성전경비대의 이미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0-39.
- 주은평,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 단락(출 4:21-23)과 연결하여 본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신학적 해석”, 『구약논단』 93집 (2024년 9월), 361-393.
- 최현일, “קָרָא(파카드)를 통한 민수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롬(אֵרֹם), 아롬(אֵרֹם), 에롬(אֵרֹם): 그 의미

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44-171.

André, Gunnel, “קָפַח”,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2 (Grand Rapids: Eerdmans, 2003), 50-63.

Barr, James,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Childs, Brevard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Davies, G. I., *Exodus 1-18: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1: Chapters 1-10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London: T&T Clark, 2020).

Gehman, Henry Snyder, “Ἐπισκέπομαι, ἐπίσκεψις, ἐπίσκοπος, and ἐπισκοπή in the Septuagint in Relation to קָפַח and Other Hebrew Roots: A Case of Semantic Development Similar to That of Hebrew”, *Vetus Testamentum* 22 (1972), 197-207.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ew Grammar*, ed. E. Kautzsch, trans. A. E. Cowley,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10).

Grossfeld, Bernard, “The Translation of Biblical Hebrew קָפַח in the Targum, Peshitta, Vulgate and Septuagint”,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6 (1984), 83-101.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Jipp, Joshua W., *Divine Visitations and Hospitality to Strangers in Luke-Acts: An Interpretation of the Malta Episode in Acts 28:1-10*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153; Leiden: Brill, 2013).

Koehler, Ludwig/Walter Baumgartner/Johann Jakob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trans. M. E. J. Richardson, 5 vols. (Leiden: Brill, 1994-2000).

Lanier, Gregory R., “Luke’s Distinctive Use of the Temple: Portraying the Divine Visitation,”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5/2 (2014), 433-462.

Sarna, Nahum M., *Exodus* (Jewish Publication Society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Sarna, Nahum M., *Genesis* (Jewish Publication Society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chottroff, Wolfgang, “פָּקַד pqd to attend to”, Ernst Jenni (ed.), with the assistance of Claus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trans. Mark E. Biddle (Peabody: Hendrickson, 1997), 1018–1031.
- Stuart, Douglas K., *Exodus* (New American Commentary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 Tov, Emanuel,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3rd ed.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5).
- Williams, Tyler F., “פָּקַד”,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7), 657–663.
- Anthropic, *Claude Sonnet 5* (2026년 6월 30일), [대형언어모델(LLM)]. <https://www.anthropic.com>
- Google, *Gemini Deep Research*, (Gemini 3.1 Pro, 2026년 4월 21일), [대형언어모델(LLM)]. <https://gemini.google.com>
- OpenAI, *ChatGPT* (GPT-5.5, 2026년 4월 23일),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검색어

파카드(פָּקַד), 에피스키프토마이(ἐπισκῆπτομαι), 형태·통사적 반복, 서사적 기능, 칠십인역(LXX)

[ABSTRACT]

The Narrative Function of PQD in the Pentateuch and Its LXX Translation Equivalents: Focusing on Genesis and Exodus

Isaac Park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morpho-syntactic features, narrative linkages, and LXX translation equivalents of selected uses of the Hebrew verb פָּקַד in the Pentateuch through a comprehensive survey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its occurrences.

A survey of all verbal occurrences shows that the usages classified here as “salvific visitation” are concentrated in Genesis and Exodus, providing an inductive basis for focusing on these two books. Read synchronically in their final form, the relevant texts display recurring lexical and morphological correspondences: Genesis 21:1 presents פָּקַד in connection with the fulfillment of prior divine speech; Genesis 50:24-25 employs the infinitive absolute construction פָּקַד יִפְּקַד to affirm future divine action; Exodus 3:16 reuses the same root in פָּקַד פָּקַדְתִּי; and Exodus 13:19 explicitly recalls Joseph’s earlier declaration.

Exodus 32:34 provides a contrasting judicial usage. Here פָּקַד occurs in a different morpho-syntactic environment, including an עַל construction and the noun מַשְׁאָלָם, corresponding to its function of judicial recompense rather than salvific care. The LXX likewise displays a notable translation pattern: ἐπισκέπτομαι repeatedly renders פָּקַד

www.kci.go.kr

in the salvific usages, though it is not restricted to salvific contexts. The Hebrew infinitive absolute constructions are consistently represented by a cognate construction involving ἐπισκοπή + ἐπισκέπτομαι. This pattern therefore reflects a recurring contextual correspondence rather than a fixed one-to-one lexical equivalence.

This study clarifies how the meaning and function of ִקְדָּשׁ are realized in specific contexts and how selected Genesis-Exodus occurrences are related within the Hebrew text and reflected in the Greek translation. It also provides a philological basis for extending the analysis to other Pentateuchal and biblical corpora.

key words

PQD (paqad), ἐπισκέπτομαι, morpho-syntactic repetition, narrative function, Septuagint (LXX)

투고일 : 2026년 7월 22일

심사일 : 2026년 8월 14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8월 18일

www.kci.go.kr